



모든 이에게 봉사해요!



포콜라레
천주교마리아사언회

“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,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.”
(마르 9, 35)



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이라는 마을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셨어요.



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,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좀 전에 어떤 일로 다투었는지 물으셨어요. 제자들은 각자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다투었던 걸 기억하면서 많이 부끄러워했어요.



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앉으라고 하시고는 “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,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.” 라고 말씀 하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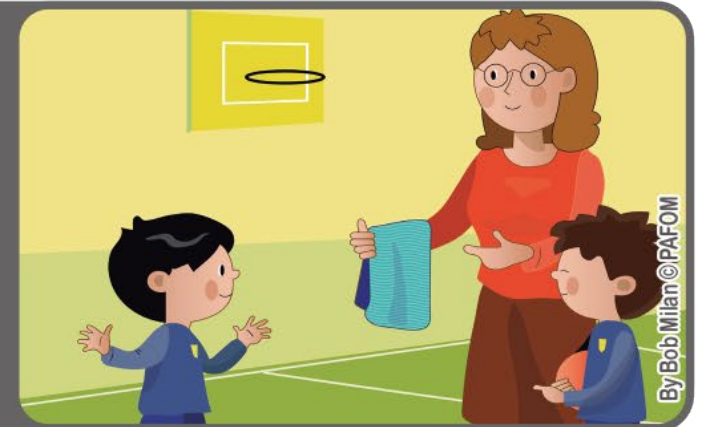


노르웨이에 사는 바오로의 경험담이에요.

로베르토는 노르웨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곤 해요. 그러던 어느 날, 로베르토가 울고 있었어요.



로베르토와 친구가 되고 싶었던 바오로는 로베르토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어요. 로베르토는 체육 시간 후에 사용할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어요.



바오로는 선생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고 깨끗한 수건을 받아서 로베르토에게 가져다주었어요.